

LOGISIGHT

WEEKLY INTELLIGENCE

WEEKLY REGIONAL ANALYSIS · AMERICAS

미주 권역 물류 현황 분석

보고기간 09/07~09/13

1. 아시아-미국 해상 운임 급등 및 성수기 할증료 부과
2. 미국 관세 정책 강화와 기업 부담 확대
3. 국제 배송 통관 및 관세 사전 고지 지원 도구 출시

LOGISIGHT 인텔리전스팀

2026-W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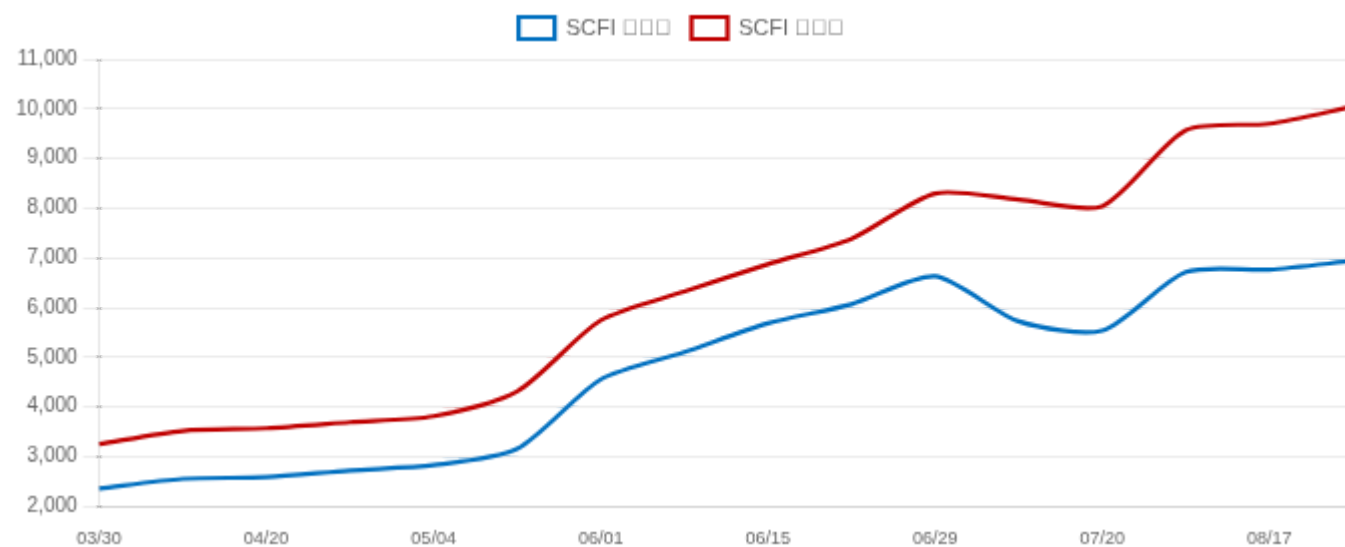
종합

이번 주 미주 권역의 핵심 흐름은 글로벌 공급망 비용 상승과 통관 복잡성 증가로 요약됨. 아시아-미국 해상 운임은 성수기 수요와 항만 혼잡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CMA CGM이 최대 1만 달러의 성수기 할증료를 도입하며 운임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음. 동시에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로 기업들의 관세 부담이 확대되며, 특히 중견기업과 캐나다산 특정 품목에 대한 영향이 두드러지고 있음.

이러한 비용 및 규제 환경 변화는 기업의 물류 전략과 국제 전자상거래에 직접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음. 페덱스가 쇼피파이 앱으로 출시한 '페덱스 듀티 앤드 택스'는 결제 단계에서 관세·세금을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수입 비용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국제 배송 복잡성을 낮추려는 전략적 행보로 해석됨. 향후 이러한 디지털 도구의 도입은 비용 투명성 제고와 통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됨.

운임 지표

지수 · 항로	최신값	기준(월/일)	WoW	MoM
SCFI 미서안	6,940 \$/FEU	08/24	+2.6%	+25.4%
SCFI 미동안	10,046 \$/FEU	08/24	+3.6%	+25.0%
KCCI 미서안	7,424	09/07	+3.1%	+10.3%
KCCI 미동안	10,989	09/07	+4.8%	+13.3%



자료: freight_indices (Shanghai SCFI · KCCI) · 기준 08/24

아시아-미국 해상 운임 급등 및 성수기 할증료 부과

아시아-미국 해상 운임이 성수기 수요와 항만 혼잡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CMA CGM이 최대 1만 달러의 성수기 할증료를 도입하며 운임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음.

아시아발 미국행 해상 운임은 성수기 정점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9월 8일 기준 아시아→미국 서안 스팟 운임은 FEU당 7,569달러로 전주 대비 1% 하락, 동안 노선은 9,505달러로 3% 하락함. 이는 5월 초부터 7월 말까지 이어진 강한 수요와 항만 혼잡으로 운임이 급등한 데 따른 조정으로 보임.

운임 상승의 주요 원인은 성수기 물동량 증가와 항만 혼잡임. 태풍 사우델이 중국 닙보와 상하이 항만 운영을 차질시켰고, 닙보항은 72시간 이상 폐쇄됨. 상하이항에는 지난주 약 42척이 접안하고 99척이 정박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됨. 이로 인해 선사들은 혼잡 항만 기항을 건너뛰면서 역내 환적 물동량이 늘어나는 등 물류 흐름에 차질이 발생함.

높은 운임과 항만 혼잡은 글로벌 공급망에 부담으로 작용함. 특히 미국 수입 화주들은 운임 상승과 할증료 부담으로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항만 적체로 인한 화물 지연 가능성이 상존함. CMA CGM의 최대 1만 달러 성수기 할증료 도입은 이러한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임. 시장에서는 성수기 종료와 함께 운임 추가 상승 여지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나, 항만 적체 해소 속도와 태풍 추가 발생 여부에 따라 단기 변동성은 남아 있음.

- CMA CGM, 10월 1일부터 아시아발 미국행 화물에 최대 1만 달러 성수기 할증료 부과. 인도 아대륙·방글라데시→미 동안·걸프만 노선 20피트·40피트 모두 1만 달러.
- 9월 8일 기준 아시아→미 서안 스팟 운임 FEU당 7,569달러, 동안 9,505달러로 전주 대비 각각 1%, 3% 하락.
- 태풍 사우델로 닙보항 72시간 폐쇄, 상하이항 정박 대기 99척 발생.
- 프레이트오스 발틱 인덱스 기준 현재 운임은 올해 7월 이후 최고 수준에서 다소 하락했으나 지난해 성수기와 유사.

전망

성수기 종료와 함께 태평양 노선 운임의 추가 상승 여지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다만 항만 적체 해소가 지연되거나 추가 태풍이 발생할 경우 단기적으로 운임 하락이 지연될 수 있음. 선사들의 할증료 정책과 수요 변화에 따라 운임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음.

시사점

화주 — 미국 수입 화주는 성수기 할증료와 높은 운임으로 물류비용 부담이 가중되므로 대체 운송수단이나 조기 선적 등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해야 함.

포워더 — 포워더는 항만 혼잡과 운임 변동성을 고려한 유연한 물류 계획 수립과 고객사와의 운임 협상 전략이 필요함.

항만·선사 — 선사는 할증료 인상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으나, 항만 혼잡 해소를 위한 운영 효율화와 선복 관리가 중요함.

미국 관세 정책 강화와 기업 부담 확대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로 모든 산업에서 기업의 관세 부담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중견기업과 캐나다산 특정 품목에 대한 영향이 두드러짐.

미국 중견기업의 관세 납부 지수가 2024년 10월 기준 100에서 2025년 10월 314로 정점을 찍은 후 2026년 6월 222로 하락했으나 여전히 기준치의 두 배를 상회하고 있음.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체제 도입 이후 모든 산업에서 비용 부담이 커졌음을 시사함.

업종별로는 의류 제조업의 관세 부담률이 2023~2024년 3.3%에서 2025~2026년 5.2%로 상승했으며, 중견기업은 대형 기업에 비해 구매력과 자본 여력이 부족해 통상 정책 변화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중견기업의 해외 거래처 대금 지급 성장세가 국내 대비 6~12%p 낮은 수준에 그쳐, 기업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공급망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한편 미국은 캐나다에 대한 무역 제재를 강화하여 오토바이, 주류 등에 대한 수입 금지와 50% 관세 확대를 발표함. 수입 금지 대상 품목의 교역 규모는 10억 달러 미만으로 추산되지만, 이는 양국 간 보복 관세 지속으로 관련 품목의 통관과 조달 전략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러한 정책들은 미국 기업의 비용 부담을 높이고 공급망 재편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음. JP모건은 중견기업들이 전략적 공급망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진단했으며, 업계에서는 관세 부담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임.

- 미국 중견기업 관세 납부 지수: 2024년 10월 100 → 2025년 10월 314 → 2026년 6월 222
- 의류 제조업 관세 부담률: 3.3% → 5.2%
- 미국 정부 월간 관세 수입: 2025년 10월 340억 달러 → 2026년 6월 237억 달러
- 캐나다산 오토바이·주류 등 수입 금지, 특수 치즈·가구 등 50% 관세 확대
- 중견기업 해외 지출 성장률 국내 대비 6~12%p 낮음

전망

미국의 관세 정책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의 관세 부담은 완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특히 중견기업은 비용 흡수 능력이 제한적이어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 캐나다와의 무역 갈등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임.

시사점

화주 — 관세 부담 증가로 인해 가격 전가 또는 미국산 구매 전환 등 비용 관리 전략 수립이 필요함.

포워더 — 통관 절차와 규제 변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객사에 맞춤형 대응 방안을 제공해야 함.

항만·선사 — 수입 금지 품목의 물동량 감소 가능성에 대비해 노선 및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국제 배송 통관 및 관세 사전 고지 지원 도구 출시

페덱스가 쇼피파이 앱으로 출시한 '페덱스 듀티 앤드 택스'는 결제 단계에서 관세·세금을 보장해 제시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수입 비용을 방지하고, '글로벌 트레이드 내비게이터' 도구 모음을 통해 중소기업의 국제 배송 복잡성을 낮추려는 전략적 행보이다.

국제 전자상거래에서 배송 시점에 부과되는 추가 관세·세금·수수료는 고객의 구매 포기과 환불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매출 손실을 야기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페덱스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8%가 고객이 추가 비용에 놀라는 상황을 적어도 가끔 경험하며, 60%는 이로 인한 매출 손실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페덱스는 쇼피파이 기반의 '페덱스 듀티 앤드 택스' 앱을 월 99달러에 제공하여, 결제 시점에 관세와 세금을 확정적으로 제시하고 실제 부과액이 더 높을 경우 차액을 자사가 부담하는 구조를 도입했다. 이는 고객의 비용 불확실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전환율을 높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동시에 페덱스는 국제 배송의 전 단계를 아우르는 통합 디지털 도구 모음 '글로벌 트레이드 내비게이터'를 출시했다. 이 모음에는 제품 설명·URL·이미지를 통해 HS 코드를 찾고 관세·세금을 추정하는 '페덱스 트레이드 플래너', 통관 가액과 제조 국가 정보를 검토할 수 있는 '페덱스 쉽 매니저'의 신기능, HS 코드 조회 및 규제 준수 요건을 제공하는 '글로벌 트레이드 API'가 포함된다. 이러한 도구들은 배송 전 의사결정 단계에서 기업들이 겪는 복잡성을 줄이고 무역 정보 접근성을 높여, 특히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국제 배송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경쟁사인 UPS도 지난해 구매 완료 전 총 착륙 비용을 보장해 보여주는 'UPS 글로벌 체크아웃'을 출시했고, 국경 간 거래 기술 기업 조노스는 쇼피파이에서 관세를 계산하고 통관 청구 차액을 지불하는 앱을 운영 중이다. 페덱스의 이번 신제품은 경쟁사 대비 결제 단계 비용 투명성에서 최소 동등하거나 우위에 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쇼피파이 외 플랫폼으로의 확장 계획도 시사했다. 이는 국제 배송 시장에서 비용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 페덱스, 쇼피파이 앱 '페덱스 듀티 앤드 택스' 월 99달러에 출시 — 결제 시 관세·세금 보장 제시, 초과분은 페덱스가 부담
- 2026 중소기업 무역 지수: 중소기업 68%가 추가 관세·세금·수수료로 고객이 놀라는 경험, 60%는 매출 손실 경험
- 글로벌 트레이드 내비게이터: 트레이드 플래너(HS 코드·관세 추정), 쉽 매니저 신기능(통관 가액·제조 국가 검토), 글로벌 트레이드 API(규제 준수) 포함
- 경쟁사 동향: UPS 글로벌 체크아웃(총 착륙 비용 보장), 조노스 쇼피파이 앱(관세 계산·차액 지불) 등 수입 비용 투명성 경쟁 심화

전망

페덱스의 신규 도구는 중소기업의 국제 전자상거래 진입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신뢰를 높여 크로스보더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경쟁사들도 유사한 비용 투명성 솔루션을 강화함에 따라, 국제 배송 시장에서 관세·세금 사전 고지의 정확성과 사용자 경험이 주요 차별화 포인트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월 99달러라는 고정 비용과 서비스 수수료 부가가 중소기업 판매자에게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도구의 채택률은 결제 규모와 국제 판매 비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사점

화주 — 전자상거래 기업은 관세·세금 사전 고지 도구를 활용해 고객의 구매 포기를 줄이고 매출 손실을 방지할 수 있으나, 월 비용과 수수료 대비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

포워더 — 통합 디지털 도구가 국제 배송의 진입 장벽을 낮춤에 따라, 포워더는 부가가치 서비스 차별화와 중소 화주 대상 컨설팅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항만·선사 — 배송 전 정보 투명성 향상은 통관 지연이나 분쟁 감소로 이어져 물류 흐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참고자료: Supply Chain Dive, FedEx, 국제 배송 관세 사전 고지 도구 출시...월 99달러 · DC Velocity, 페덱스, 국제 배송 통합 지원 도구 출시...중기 애로 해소 목적 (검색일: 2026-09-13)